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황혜연



소개글

1999년 '창조문예'지에 박화목 선생님의 추천으로 등단하면서 신인상을 받은 글이다.

명확한 문장과 적절한 비유와 함축, 시적 정서의 흐름이 돋보였으며, 문학작품으로서 동화가 갖추어야 할 쾌락적 기능과 함께 아동들의 인성과 정서를 골고루 다스려 주는 교시적 기능을 동시에 완결한 좋은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목차

•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황혜연

옛날 어느 숲속에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참 감람나무였으며 다른 하나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잎이 아주 무성하고 싱싱했으며 가지들도 건강하게 쪽쪽 뻗어 있었습니다.
 숲속에는 참 감람나무의 당당한 모습을 따라 올 나무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열매는 크고 기름지고 탐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가장 알맞은 것으로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뽑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일 년에 한 번씩 감람 열매를 따기 위하여 그 숲으로 왔습니다.
 숲속의 많은 나무들이 그를 우러러보았습니다. 나무들은 그를 칭찬하고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참 감람나무는 다른 나무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주 거만하게 눈을 내리깔고 작고 보잘것없는 다른 나무들을 무시하고 깔보았어요.
 "못난 것들이 그래도 제법 나무라고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군." 그는 곧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숲에서 참 감람나무의 교만함과 냉정함을 모르는 나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참 감람나무 바로 곁에는 돌 감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의 그늘에 가려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무였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하늘 한 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감람나무 곁에 돌 감람나무가 서 있다는 것조차 몰랐으니까요.
달콤하고 맛있는 햇빛도 참 감람나무의 나뭇잎 밑에서 아주 조금씩 맛보아야 했습니다.
단비가 숲을 적시는 날엔 참 감람나무의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물방울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맛보고 싶어서 가지를 치켜 올리면 이내 참 감람나무의 비웃음을 들어야 했어요.
"넌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 손 저리 치워. 넌 하나님이 버린 나무야!"
돌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버린 나무'라는 말에 한마디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의 마음속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행여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참 감람나무의 훌륭한 자태에 흠이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 가지 사이로 새어들어 오는 햇빛이 고마웠습니다.
그 앞에서 떨어지는 빗물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동치 아래로 발을 뻗을 수 있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해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이었습니다.
나무들을 다스리는 주인이 숲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온 숲에 퍼져갔습니다.
조용하던 숲속은 갑자기 소란해졌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구겨진 옷 주름을 바로 세워 새것처럼 단장했습니다.
안개와 이슬로 목욕을 한 참 감람나무는 어느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모두들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오로지 참 감람나무에게 쏠려 있을 거야.'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달고 있잖아.'

숲의 주인은 어떤 나무보다 참 감람나무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은 참 감람나무 곁에 말없이 서 있는 초라한 옷차림의 돌 감람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누구니? 너도 감람나무 같기는 한데....."
돌 감람나무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돌 감람나무라고?"
"예. 저는 아직 열매를 가져보지 못했거든요."
주인은 돌 감람나무를 지긋이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 조용한 목소리, 다소곳한 태도가 아름다웠습니다.
"믿음을 가져. 아무리 힘이 들고 괴로울지라도 네 마음속에 절망을 키우는 것은 위험한 일이야.
절망하는 나무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단다."
"믿음을 가지라구요?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해. 그리고 네 생명을 믿어야 해.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믿음을 가져야한다'는 주인의 말이 화살처럼 돌 감람나무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주인은 왜 참 감람나무 그늘에 가려진 초라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돌 감람나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주인의 얼굴을 우러러보면서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걸요."

"가진 것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주인은 돌 감람나무 곁으로 다가서면서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나무는 없어. 돌 감람나무야, 네 마음속 사랑을 일으켜서 기도부터 하려무나."

주인의 말이 돌 감람나무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일이라면 사랑으로 기도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돌 감람나무의 눈앞이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풀숲 여기저기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게 들렸습니다.

참 감람나무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비치는 햇살이 그 어느 날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일이라면 하지요. 주인님! 기도하는 일이라면 저는 할 수 있어요."

돌 감람나무는 맑은 미소를 띠면서 말했습니다.

돌 감람나무의 감사와 겸손과 거기서 우러나오는 행복이 주인의 마음에도 전해졌습니다.

숲을 모두 돌아본 주인은 다시 도회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했습니다.

그때, 참 감람나무의 커다란 목소리가 돌아가는 주인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햇빛이 따가운 거지? 내 잎사귀가 다 말라가잖아!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달고 있는 내게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러다간 열매가 제대로 영글지 못하잖아."

참 감람나무의 짜증이 하나 둘 늘어갈 때마다 그의 얼굴과 그의 가슴과 그의 몸 여기저기에는

주름살 같은 골이 하나 둘 패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날이 갈수록 사나워졌습니다.

그의 불평과 불만은 자꾸 커져갔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으면서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나무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갔습니다.

숲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 마을과 멀리 다른 들판에까지 참 감람나무의 악한 행실은 퍼져나갔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사나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가장 무성해야 할 여름이건만 나무들은 기를 펴고 자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가 하면 갑자기 태양이 온 숲을 집어삼킬 듯이 뜨겁게 이글거렸습니다.

나무 잎새들은 가지를 펼쳤다가 이내 움츠려야 했고 움츠렸다가 다시 몸을 펼치면서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히 여겼습니다.

속삭이듯 풍문이 떠돌았습니다.

"곧 불의 심판이 있게 된대."

뜨거운 햇볕과 쉬지 않고 부는 바람은 감람나무들의 물기를 건었습니다.

감람나무의 잎이 말라서 떨어지더니 몸의 여기저기가 꼬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방에서 아우성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들이 말라가는 숲의 능선을 넘어서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저마다 제 목숨을 구걸하면서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 발치에 있었고 그의 무성한 가지의 그늘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거센 바람도 뜨거운 태양에도 건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 감람나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만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돌 감람나무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돌 감람나무가 흘린 눈물은 그의 발등을 적시고 땅을 적셨으며 땅을 타고 내려가 돌 감람나무의 뿌리까지 적셨습니다.

그리고 땅 속 깊이 스며들어 진액이 되어 돌 감람나무의 속으로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남을 부러워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께서 주신 생명을 함부로 다루었어요. 잘 간수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깨닫지 못한 미련스러움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돌 감람나무는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끝없이 용서를 빌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돌 감람나무의 애타는 기도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들도 함께 용서를 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여움을 푸실 거예요."

나무들은 저마다 교만을 뉘우치고 시기와 질투를 뉘우쳤으며 탐욕을 뉘우치고 무례를 뉘우쳤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였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뉘우치는 눈물이 가뭄에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오직 한 나무 참 감람나무만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의 발을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참 감람나무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달고 계시니까요."

"내가 왜? 난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무란 말야. 너희들하고는 처지가 다르지.

너희들처럼 부족하고 천한 것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없단 말이야!"

참 감람나무는 자신이 왜 무릎 꿇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목마름의 아우성과 슬픈 기도소리로 숲은 여러 날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태양이 점점 그 불길을 잠재우고 다시 예전처럼 순해지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물기를 머금고 이슬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메말랐던 대지를 적셔주는 빗줄기가 온 숲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죽은 듯이 었드렸던 나무들의 몸에서는 서서히 파아란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느티나무, 싸리나무, 오동나무, 상수리나무들이 기지개를 펴면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에도 연한 새싹이 수줍은 듯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오직 한 나무, 참 감람나무의 잎새만은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틀리고 꼬였던 그대로 누렇게 떠서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참 감람나무를 찾아 숲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람나무 열매를 딸 수가 없었지요.

참 감람나무는 마를 대로 말라서 죽어버리고 돌 감람나무는 아직 열매를 달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번갈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벼락을 맞았군요. 이제야 말하지만 참 감람나무 열매가 아주 좋은 열매 맞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열매는 크고 보기 좋았지만 맛이 좀 떼고 질겼잖아요?"

"이 돌 감람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가지들이 모두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걸 보세요."

사람들은 말라 죽은 참 감람나무를 도끼로 베어 넘어뜨렸습니다.

베어진 나무는 타서 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의 발아래 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다음 돌 감람나무는 숲의 주인이 했던 말을 생각했습니다.

"네 마음속 사랑을 일으켜서 기도부터 하려무나."

돌 감람나무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더 자라서 참 감람나무가 된 다음에도, 내 열매가 하나님의 재단에 바쳐지고 그래서 사랑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부디 자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열매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부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블로그 채흠의 fairytale <http://blog.daum.net/daisies63>

저자 황혜연

발행일 2011.02.10 12:34:17

 블로그